



Campus Crusade for Christ

‘ 향기 나는 하인 하람 ’ 2009년 5월 정하인, 신하람 선교가 보내는 기도편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2:15)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에게,
 한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에 더욱 깊이 기도가 터집니다.
 특히, 한 나라를 이끌어가던 대통령의 자살 소식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처한 이 민족을 구원할 우리의 최고의 병기는 기도입니다.
 온 나라가 어수선한 이 때에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샬롬!

수업시간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어,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고 써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13: 1) 참으로 한심한 질문입니다.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하나의 문장만을 읽고 나서 무조건 자기 주장만을 펼치는 자들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동안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온전히 분별케 하시고,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한 문장만을 알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2: 15)

지난 5월 9일엔 학사학위를 받는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히 영어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겸손한 일군이 되기 위해서 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위가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한 위치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남은 1년의 연수기간 동안 석사과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

〈항상 곁에서 묵묵히 섬기는 아내에게 감사〉



으로 성숙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형제는 싸우면서 정이 듭니다!

겉이와 언이는 서로 발로 차고, 침대 위에서 점프해서 발로 찌고! 달리기를 하다가 탁자에 부딪혀 눈이 퍼렇게 멩들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줄줄 흐르고…… 아니, 이건 장난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저는 가끔씩 너무나도 화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면 “야! 겉이 너 언이랑 장난하지마! 다시 그렇게 심하게 장난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최근 점점 그 싸우는 정도가 심해져 속이 터져라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않으면 서로 정이 들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자란 형제가 더욱 친하고 서로를 잘 위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개입해서 통제한 형제들이 다 큰 후에 서로간에 얼마나 정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겸이와 언이가 심하게 장난을 해도 결코 제가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지 않습니다. 겸이도 언이도 곧 자라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고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전 13장11절)

사랑은 로맨스 (Romance) + 의지 (Will)

싱가폴 한인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긴 지 이제 3년째입니다. 그 동안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헌신적으로 섬기고자 몸부림 치는 모습을 보며 이런 청년들을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늘 감사했습니다. 해외에서 바쁜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려는 이들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2009 상반기 청년부 리더 리트릿〉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담은 청년들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신앙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을 보고 섬기는 목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감성적이며, 낭만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님과 사랑은 로맨스를 포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만적이고 황홀한 경험이 다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를 드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는지 모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의 감성도, 지성도,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종할 때 이루어 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어 드리는 것에

만 익숙하고 삶을 드리는 것에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따라 복종하고 삶 속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낭만적인 로맨스를 좇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드러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 전체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 22)

더욱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EAST 학생회 회장 임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 연약해져 있던 리더십과 더욱 헌신의 마음과 자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To be a Christlike leader~



〈2009년을 섬길 Student Council Member들과 함께〉

아빠, 왜 예수님이 다리 꼬고 죽었어?

언이에게 예수님을 아니? 라고 했더니 대뜸 언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 “아빠, 왜 예수님은 손 벌리고, 다리 꼬고 죽었어?”

아빠: “응, 그건 언이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지. 언이 그거 믿어?”

언: “응!”

아빠: “언이야, 근데, 아빠가 하는 말 이해할 수 있니?”

언: “.....#%*@*& 응!”

언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저는 무조건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언이의 머리에 새겨지도록! 신앙은 단순한 진리를 반복해서 학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언이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 번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아빠의 강요는 절대 아님!)



*** 필요를 따라가지 말고, 부르심을 따르라! ***

남은 연수과정을 마무리하고 어디로 가야 할 지에 관하여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몇 곳을 보여주시며 필요를 보게 하셨고 기도로 겸손히 준비시키십니다.

저희는 중국사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으로 또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과 눈에 보이는 필요를 보고 좇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필요가 아닌 부르심을 따라 가며 나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머슴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한국 갑니다. (6월 1 ~ 18)

지난 4월에 저희 어머님께서 무릎관절 수술하신 후에 지금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찾아 뵈고 새로 태어난 손녀도 보여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니 순종하며 갑니다.

최근, 고국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하프지만 2년 만에 돌아갈 조국 땅을 생각하면 마냥 설레기만 합니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견고케 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기간 이지만 꼭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고 오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되도록 기도 해 주세요.

(임시연락처 키맨: 신은수/010 - 5082 - 8964)

2009년 5월

정하인, 신하림 드림

BLK135 Bishan St.12 #18-406, Singapore 570135/ Tel. 65)67295773, Mail/ jsanghyuk@bpta.net

후원신청 www.kccc.org 일시불 후원/ 국민은행 604-21-0753-720(정상혁)

※ 특별 모금

- 한국 방문경비를 위해 모금하고 있습니다. (\$3000SGD/270만원)
- 저의 학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C.C.C에서 100% 지원해 주던 학비가 이제는 25%정도로 줄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 더 공부를 하기 위한 재정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6000SGD/540만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4: 19)